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북한포커스

북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1

북한포커스

북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4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7



미국 인프라 투자안 합의 내용 및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21.4월에 제안한 장기 인프라 투자안 중 노후화가 심각한 전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안 합의에 도달
- ◆ 미국 의회의 현행 의석 구성상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최초 원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이 결국에는 관철될 전망이다, 예산 조정과정상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어 실제 예산집행 시점은 다소 유동적

□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21.4월에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3개월여의 협상을 거쳐 일부 합의에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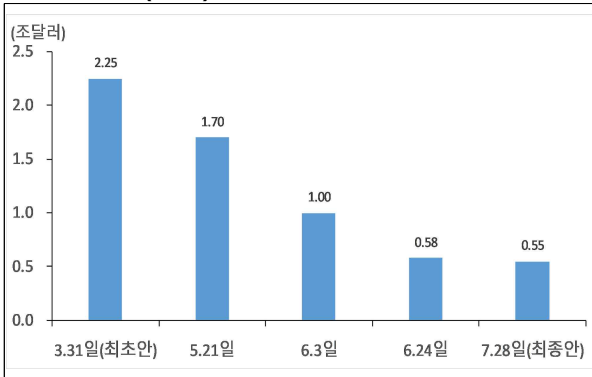
- '21.4월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미국의 인프라 장기(長期) 개선 목표를 담은 "American Jobs Plan(1차, 물적 인프라)"과 "American Families Plan(2차, 인적 인프라)"을 발표
 - 당초 제시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안은 각각 2.25조달러(American Jobs Plan)와 1.73조달러(American Families Plan) 예산안으로 총합 약 4.0조 달러 규모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 및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다시 인상함으로써 주요 재원을 조달할 계획
 -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하(35%→21%)했던 법인세율을 28%까지 되돌리고, 고소득자(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현행 37%)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향후 15년간 필요 재원을 충당
 - 야당인 공화당은 노후화가 심각한 전통 인프라 재건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 ①미국 재정건전성 악화와 ②팬데믹 국면에 기업 증세로 인한 기업 재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
-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초당적 합의(찬반 69:30)로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를 위한 약 1.2조달러(기책정예산 6,300억달러+금번 합의예산 5,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정안이 상원을 통과
 -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인프라 투자안(총 2.25조 달러) 중 심한 노후화로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예산 투입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 예산만 구분하여 합의에 도달

- 이번 합의안은 기존 전통 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Baseline)*에 5,500억달러 예산이 추가된 것으로, 하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22년 회계연도('21.10월~)부터 집행 가능

* 백악관(The White House)에 따르면 기존에 이미 책정되어 있던 전통 인프라 부문 투자 예산(Baseline)은 향후 5년간 약 3,900억달러, 또는 향후 8년간 6,300억달러 규모이며, 금번 합의된 신규 사업예산 5,500억달러를 추가하여 전통 인프라 부문 총예산액이 각각 9,400억달러와 1조 1,800억달러로 최종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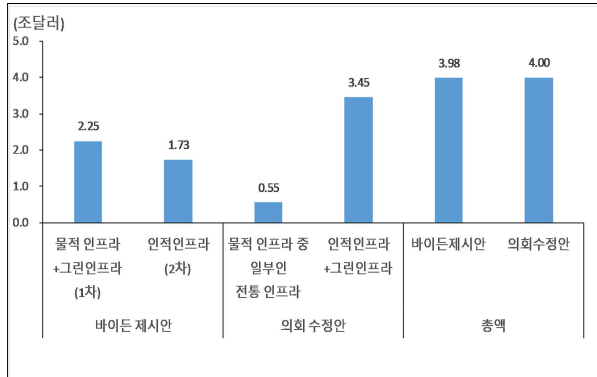
- 1차 인프라 투자원안에 포함된 사업 부문 중 이번 합의안에서 배제된 그린 인프라 투자 예산은 2차 인프라 투자안으로 이동 편입되어 의회에서 심의될 전망

바이든 1차(물적) 인프라 투자안 규모 변경 과정



자료 : 언론 종합
 주 : 바이든 1차(물적) 인프라 투자 원안(American Jobs Plan)은 당초 전통 인프라 및 그린 인프라 투자를 망라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전통 인프라 부문으로 축소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변경 내용



자료 : 언론 종합
 주 : 1차(물적) 인프라 투자안에서 배제된 그린 인프라 부문 투자 계획은 2차(인적) 인프라 투자안으로 이동

바이든 1차(물적) 인프라 투자안 예산투입 분야

(단위 : 억달러)

분야	세부 부문	투입 예정 예산	
교통, 도로 등	도로 및 교량	1,100	
	철도	660	
	공공교통	390	
	공항	250	
	항만 및 수로	170	
	전기차	150	
	도로안전망 구축	110	
	유틸리티	전력 인프라	650
		브로드밴드(통신 인프라)	650
		수도 인프라	550
	재생에너지	470	
	기타	350	
	총액	5,500	

자료 : 언론 종합

□ 바이든 대통령의 1차(물적)·2차(인적) 인프라투자안은 결국 당초 원안 규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다만 최종 타결까지는 정치적 진통 불가피

- 최초 “1차(물적) 인프라 투자안(American Jobs Plan)”에 포함된 항목 중 전통 인프라 외 부문 예산은 “2차(인적) 인프라 투자안(American Families Plan)” 예산과 통합하여 여당(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 우세
 - 미 의회 예산안 통과 요건이 상원은 60석 이상(총 100석) 찬성인 반면, 하원은 과반 찬성이므로, 현재 과반 이상인 민주당 의석(총 435석 중 220석)만으로도 이번 합의안은 통과 가능
 - 민주당은 “1차(물적) 인프라 투자” 원안 예산 중 금번 합의 제외된 예산과 “2차(인적) 인프라 투자” 원안 예산을 통합한 2차 인프라투자 조정안을 예산 조정절차*를 활용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
 - * 세출(Spending), 세수(Revenue), 연방부채한도(Federal debt limit) 안건에 국한해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0석이 아닌 단순 과반인 51석 찬성으로 예산안 통과 가능
 - * 현재 상원의 민주당 의석수는 50석이며 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므로 과반인 51석 동원 가능
-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논란과 법안 처리절차 등을 두고 여당(민주당)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
 - 법인 및 고소득층 대상 증세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 부채한도 문제에 따른 적정 재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당내에서도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이 대립
 -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3.45조달러 규모로 조정된 2차(인적) 인프라 투자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금번 1차 투자 합의안과 동반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최종 투자안의 내용과 실제 예산집행 시점이 상당폭 유동적이란 견해가 우세

북한의 품질인증제도 운영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
이 유 진(yjrhee@kdb.co.kr)

- ◆ 북한은 품질인증 관리기관인 '국가품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규격법」, 「국가품질감독법」 제정 등을 통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 중
 - 우수제품 선정 및 우수 품질메달 수여 등 자체 품질인증 제도와 ISO, HACCP 등 5개 국제품질인증 제도로 구분
- ◆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위해 국제기준 준수 노력 중

□ 북한은 내각에 설치된 '국가품질감독위원회'를 통해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 기존 국가품질감독국('49년)을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확대·개편('11.4월)하였으며, 품질감독원(品質監督員)을 주요 공장·기업소까지 파견 중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산하에 품질감독처(도), 품질감독소(시·군)를 설치하여 품질 규격 제정, 품질인증 부여,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
 - 품질감독원은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시험을 통과한 감독자격 보유자로서, 생산품 품질을 감독하고 공정별로 제품을 검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품질관리 업무 제도화를 위해 「규격법」 및 「품질감독법」을 정비
 - 「규격법」은 규격의 종류, 제정 절차, 적용 방안, 관리·감독 및 벌칙 등을 규정
 - 「국가품질감독법」은 공정검사·제품검사·품질검정 절차와 요건 및 관리·감독 방안 등을 포함

□ '2월2일제품', '12월15일 품질메달' 등 자체 품질인증 제도와 5개 국제품질인증 (ISO 9001, ISO 14001, HACCP, GMP, IEC)* 제도 운영 중

- * ISO(국제표준화기구 품질·환경 관리체계 인증), HACCP(식품·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GMP(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 IEC(전기전자 표준화기구 안전기준 인증)
- '2월2일제품'은 '81년부터 시행중인 우수제품 인증제도*로써 '20년에는 20여개 공장·기업소의 100여점의 제품이 인증 획득
 - * 김일성이 전국감독일꾼대회('81.2.2)에서 품질감독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개시된 제도, 매년 '소비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상품에 인증 부여

- '12월15일 품질메달'은 김정은 집권 후인 '14년 신설된 인증제도로써, 1개 품목당 1개 최우수 제품만을 선정하여 '2월2일제품' 제도와 차별화

2월2일제품 등록증



자료 : 조선상품, 2019.12월호

12월15일 품질메달 증서



자료 : 조선신보, 2019.5.27자

- 국제품질인증은 ISO 등 국제표준협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품질감독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인증 부여
 - 개별 공장·기업소는 국제기준 생산설비 건설 및 품질·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등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앞 국제인증 신청
 - 국가품질감독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각 국제표준협회의 심사방법서에 따라 품질·공정 등을 심사하여 인증여부 결정
- '15년까지 국제품질인증은 대동강맥주공장(ISO 9001) 등 3건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1년 상반기에만 100여건 이상의 공정이 국제품질인증 획득*
 - '17년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품질관리 및 식품위생 관리체계를 의무사항으로 지정한** 영향

* "품질감독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간 60여개 단위의 백수십개 생산공정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노동신문 2021.7.15)

** "北, 김치·맥주·화장품 등 ISO-HACCP 국제품질인증 활발," (연합뉴스 2019.5.28)

운영 중인 국제품질인증 제도

구분	인증 획득 주요 공장·기업소
ISO 9001	■ 대동강맥주공장,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 천리마타일공장, 룡악산비누공장
ISO 14001	■ 평양기초식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326전선종합공장
HACCP	■ 류경김치공장, 평양식료공장, 룡악산생물공장, 선흥식료공장, 운하대성식료공장, 원산식료공장 등
GMP	■ 평양화장품공장, 평성제약공장, 토성제약공장
IEC	■ 국가과학원 에너지연구소, 조선천연흑연개발교류사

자료 :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참조

□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생산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촉진

○ 품질인증 획득을 장려하여 공장·기업소간 경쟁 유도를 통한 제품 품질 향상 도모*

* “전사회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2월2일 제품,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기업소 대열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노동신문 2021.4.27 보도 김정은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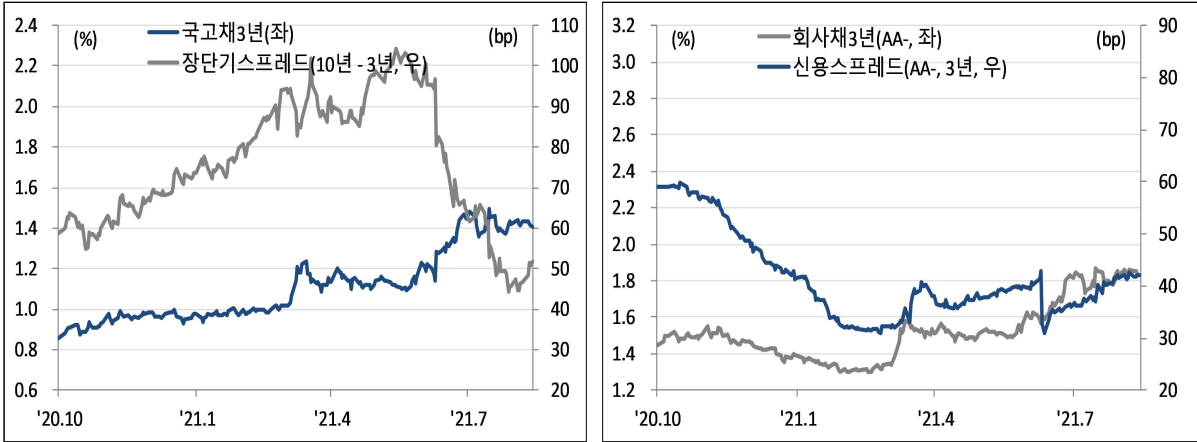
○ 향후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상품 개발 촉진*
 - '15년 이후 개별기업에 무역권**이 부여되면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이후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 노력 중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판매와 수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만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와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노동신문 2019.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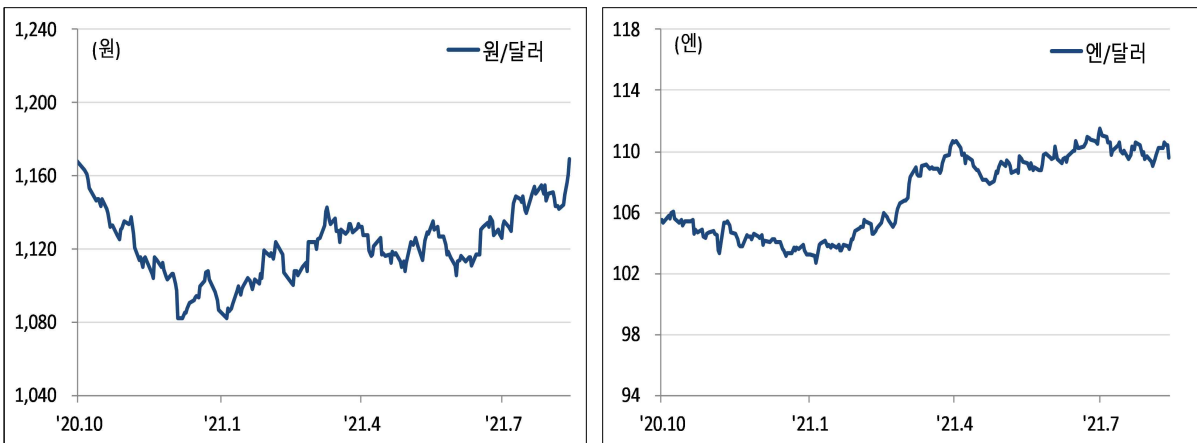
** 기존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소수 기업에만 무역권이 부여되었으나, 「기업소법」 개정('15년) 이후 광범위한 기업에 무역권을 부여 (단, 무역규모 및 품목 등은 당국의 허가 필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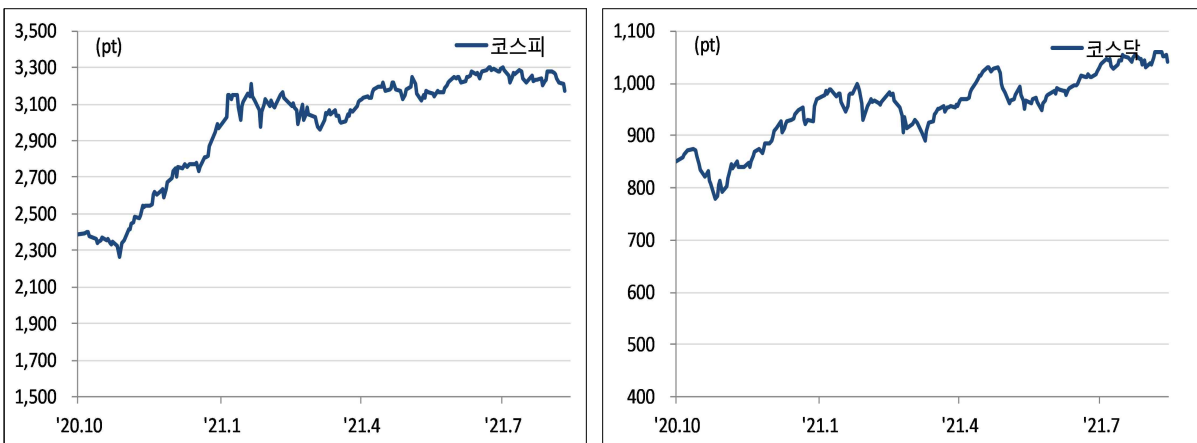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1.407% (2.6bp ↓), 신용스프레드 42.1bp (0.5bp ↓)



환율 원/달러 1,169원 (26.9원 ↑), 엔/달러 109.61엔 (0.63엔 ↓)



주가 코스피 3,171.29pt (3.03% ↓), 코스닥지수 1040.78pt (1.79%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40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